



+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문지영 수녀입니다. 저는 1995년 입회해서 2005년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부산교구 활천성당에서 전교수녀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희망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주로 지내면서, 아이들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해 하느님 나라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 기도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기쁩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첩터의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전문적 도움을 주고 싶어 미술치료사가 되었습니다. 본당에서도,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여성, 가족을 위한 미술치료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마음을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이들이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의 치유를 얻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은 저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저의 꿈은 화가와 수녀님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항상 재능을 하느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되라고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작은 달란트인 미술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저를 쓰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현대를 살아가며 가난과 아픔을 겪는

이들의 전구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현재는 여러 사도직 수행을 하느라 좀처럼 그림을 그릴 기회가 없지만, 2000년도 초기에 그린 논산과 본원, 서울 연구원에 있는 성모님 그림은 저에게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작품 활동을 통해 저의 묵상을 나누고 우리 수도회 수녀님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은 꿈을 가져봅니다.





+ Praise to Jesus Christ. Hello! I am **Sister Ji Young Moon**.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95 and made the final vows in 2005. Now, I am a sister of Pastoral Ministry at the Hwalcheon Catholic Church in Bu-San Diocese. I mainly work for the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er generations who are the hope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I pray for them every day that they may build up and grow with a strong sense of value in God's Love and be the light and the salt for the Kingdom of God. I hope the people whom I meet could touch the Living God in the Word of God. Because of thi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rayer gathering group continues to meet for meditation and sharing on the Bible. It is such a joyful time when the parishioners living with formal faith life meet God by reading and meditating on the Bible. I like children and also hearing the anguish of teen agers. Through meeting the teen agers from the North Korean Refugee Shelter, I hope to help especially these psychologically wounded young people. That is why I became an Art Therapist.



At the Parish, I have given Art Therapy for children, women,

and families who experience distress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It is so meaningful to me to accompany people who cannot express their painful minds. Finally they are to be able to express themselves because of the process of treatment of mind which I used.

From my early age, I liked art. My dream was to become an artist and sister. I remember that whenever my mother prayed for me, she always encouraged me to use my talent for God. I really thank the Providence of God who has used my small talent as His instrument of helping people through art. I continually share the Love of God as a friend of people who are poor and having trouble. Recently, I rarely have time for drawing because of doing several apostolic works. The three pictures of Blessed Mother which I drew in the beginning of 2000 are in the City of NonSan Retreat Center, Provincial House, and Seoul Seton Research Center. They could be a prayer meditation on the Life of Blessed Mother. One day, I want to share my meditation through art work. I have a dream of having an art exhibition with our artist sisters.

